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6일 월요일 음 5월 22일 (14물)

기상정보

24-31℃

파고 1.0-2.0m

파고 1.0-2.5m

파고 1.0-2.5m

파고 1.0-2.5m

23-27℃

파고 1.0-2.5m

23-26℃

호리고 비

제주는 호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6-31℃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 (15-18시)까지 가끔 비가 오겠으며 내일 새벽 한라산 서쪽 지역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올 수 있겠다.

해돋이 05:30

해질 19:48

달돋이 23:25

달질 11:05

물때 만조 02:28

간조 09:16

14:36

21:04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높음

낮음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23/31℃

모레

맑음

23/30℃

월드뉴스

트럼프, 美 건국 250주년 연설서 “반공”

11월 중간선거 염두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현지시간)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反)트럼프 진영을 향한 이념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미국의 역사를 되짚으며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는 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 미군과 중국군이 정면충돌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맥락인 동시에, 미국 국내 정치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에선 최근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이른바 ‘맘다니 사단’의 약진을 계기로 민주적 방식을 통한 사회주의 구현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확산하는 듯한 모습이다.

집권 후반기 의회 지령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연합뉴스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이 상 민

정치부장

제주~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에 차곡차곡 쌓이는 재정 불이익까지. 도민들이 최종 받게 될 청구서에 도대체 얼마가 찍힐지 감도 오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청다오 협정 체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예산담당관실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투자심사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심사 실무부서 의견이니 과연 맞는 말인지 변호사나 중앙 당

당부처에 물어볼 법도한데 오영훈 전 지사는 필요 없다는 해운부서 의견만 믿고 체결을 강행했다.

의회는 어떤가. 3년 간 최대 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소요될 수 있지만, 협정 동의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엔 투자심사의 ‘투’자도 없었고, 의원들은 심사 내내 타당성 부족, 경제성 우려를 질타하고선 유채이탈인지, 바주기인지 토시하나 건드리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민 사회 우려가 쏟아지자 오 전 지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선 투자가 필요하다”며 여론을 달랬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어느 시점엔 물동량이 이만큼 확보돼 흑자로 전환된다는 등 걱정을 덜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투자심사 패싱 논란이 불거진 건

그 뒤다. 아군인 줄 알았던 민주당원 모임이 투자심사 절차를 어겼으며 공세를 취하자, 제주도는 아차 싶었는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변호사 2명에게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결과는 2대 1. 투자심사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또 고집을 부렸다. 이제 법제처 의견까지 받겠다며 5개월 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달 법제처마저 투자 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자 제주도는 그제야 위법을 인정하고 대안을 골몰하고 있다. 투자심사 패싱은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폭탄으로도 돌아왔다.

여태껏 지급한 수십억원의 손실보전금은 투자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재정 폐널티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허공 속에 사라지는 돈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위법하게 지출한 범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기

청다오 항로 청구서

그 뒤다. 아군인 줄 알았던 민주당원 모임이 투자심사 절차를 어겼으며 공세를 취하자, 제주도는 아차 싶었는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변호사 2명에게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결과는 2대 1. 투자심사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또 고집을 부렸다. 이제 법제처 의견까지 받겠다며 5개월 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달 법제처마저 투자 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자 제주도는 그제야 위법을 인정하고 대안을 골몰하고 있다. 투자심사 패싱은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폭탄으로도 돌아왔다.

여태껏 지급한 수십억원의 손실보전금은 투자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재정 폐널티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허공 속에 사라지는 돈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위법하게 지출한 범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기

때문에 올해 1월 제주도가 첫 번째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면 불이익 규모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었지만 또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마저도 날려버렸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감사위원회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협정을 주도한 오 전 지사는 이미 도청을 떠났다.

퇴임을 앞둔 근 며칠간 투자심사 위법 문제로 제주가 떠들썩했지만 그는 사과도,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다음과 같은 퇴임사만 남겼을 뿐이다.

“다시 같은 선택의 순간이 와도 도민 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그 길을 택했을 것” 도무지 무슨 선택과 길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숨은 행간에 설마 청다오 협정이 끼어 있을까 봐 소름이 돋았다.

열린마당

물놀이구역, 안전은 즐거움을 지키는 첫걸음

디지탈 전환: 농업현장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

이영희

서귀포시 남원읍 소득지원팀장

오예진

농업디지털센터 지방농촌지도사

겸손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지정된 구역을 이용하고, 현장 안내표지와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입수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수영능력을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해야 하며, 보호자는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명조끼 착용 역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남원읍에서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4개소의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점검, 안전시설 정비, 안내표지 보강, 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안내를 따르는 작은 실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절제, 주변 사람을 살피는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이 만들어진다.

농업 현장에서 기술지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기술지도는 현장 경험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 왔으나, 기후변화와 재배환경의 다양화로 보다 정밀한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제주 DA앱은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나아가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주 DA앱은 농업인이 자신의 필지와 영농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창구로, 이를 통해 축적된 재배작물·생육상황·병해충 발생·영농작업 정보는 행정자료와 연계돼 활용된다.

특히 농업경영체 정보, 토양검정 결과, 기상정보 등과 현장 데이터가 제주DA앱을 중심으로 필지단위로 연결되면 농가별 영농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드론 영상 기반 재배정보 또한 농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행정자료 및 현장 데이터와 함께 필지단위로 연계될수록 농가의 영농 여건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입력된 정보가 필지별 토양관리와 재배기술 안내, 교육·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으로 연계될 때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처럼 데이터가 다시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로 활용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데이터 입력은 부담이 아닌 영농활동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제주DA앱은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플랫폼이며, 더 정확한 기술지도와 현장 대응, 더 나은 농업정책의 기반이 된다.

SINCE 1988

www.cheilsa.co.kr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3장 15만원

2장 12만원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신한은행

← 삼성혈 칼호텔

전농로 →

1 중앙로

NAVER 제일사 검색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공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공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